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18-32(현대인의 성경)

1. 말씀(Bible verse)

18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19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 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20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21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22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23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24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25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길이길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6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27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28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29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30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31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32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2. 묵상(Observation)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Message)

- 하나님의 노여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18절)

→ _____

- 모든 사람이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9-20절)

→ _____

-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대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21-23절)

→ _____

- 본문 21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 사이에 어떤 간격을 느낀 적이 있나요?

→ _____

- 본문 23절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상을 섬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거나 의지하는 ‘우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 _____

4. 적용(Application)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32절에서 사람들은 죄의 법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옳다고 두둔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잘못된 행동을 목격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바른 믿음의 입장에서 타인을 돋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18-32 (모두가 죄인이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 우상은 결국 자기를 섬기라 꼬드깁니다. 우리 신앙인 중에도 기독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으며, 내가 중심에 서있고 내가 잘 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람들 마음에 넣어 두셨건만,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 맡기십니다. 그 결과, 그들의 행위는 쓸모없게 될 뿐 아니라,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이러한 죄를 다른 사람에게 권하기까지 하는 실상을 보게 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탐욕과 더러움은 더욱 깊어만 가는데 안타깝게도 교인들마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나의 신앙 속에, 나를 섬기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세상의 풍조인 우상 숭배의 모습은 없는지,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허망하고 미련한 생각을 떨쳐 버리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죄인에게도 복음을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6. 기도